

[우연한 바리새인들의 교회]

오늘날 교회안에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연하게 발생한 바리새인들이 참 많다. 어느 누구도 바리새인이 되고 싶어하지 않으며, 자신을 바리새인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

레리 오스본 목사가 쓴 '당신의 열심히 위험한 이유' 라는 책의 글을 인용하면...

"우연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자신의 신앙에 철저히 헌신했다. 신학적으로도 빈틈이 없었고, 성경본문에 달인이었다. 이해하기 힘든 계명에 대해서도 지나칠 정도로 까다롭게 순종했다. 행여 하나라도 놓칠까 두려워 따로 별도의 규칙들을 만들기도 했다. 영적 훈련에 대한 이들의 수용은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업신 여길 권리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누구도 치르려고 하지 않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 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넘어서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연한 바리새인들이 우글 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의로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나 자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솔선 수범하여 교회를 위해서 누구도 치를 수 없는 대가를 치르고도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주장하거나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되지 말아야 하겠다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새삼 다짐해 본다.

출범한지 만 4 개월 18 번째 주일 예배를 준비한다. 사람들이 큰 교회와 프로그램 좋은 교회를 선호하는 시대에 아주 작은 등불과도 같은 존재가 되고싶다.